

# ‘아! 만리장성’...남녀 탁구 단체전 ‘동반 은메달’



2일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탁구 남자 단체전(스포츠 등급 4-5)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백영복(왼쪽), 김정길(가운데), 김영건(오른쪽)이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1-3)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미규, 서수연, 윤지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건·김정길·백영복, 빛나는 은메달 걸고 집으로!



한국 장애인탁구 남자 대표팀에 이어 여자 선수들도 중국의 벽에 막혔다. 서수연(35·광주시청)과 이미규(33·울산시장애인체육회), 윤지유(21·성남시청)는 2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여자탁구 단체(스포츠등급 TT1-3) 결승에서 중국의 리젠-류징-쉐쥬안에 0-2로 패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는 2016년 리우 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5년 만에 열린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지만, 이날 중국의 막혀 은메달을 획득했다. 런던대회 단체전 은메달 이후 9년 만의 여자탁구 단체전 최고 성적이다. 시상식에서 중국 국가를 들던 서수연은 “항상 애국가를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메달) 색깔 바꾸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며 “오늘도 단체전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엔 꼭 금메달 따보자’고 했는데 이번 경기 초

반부터 경기 흐름을 가져와서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쉽다.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탁구 역시 발전하고 있다. 5년 전의 동메달을 도쿄에서는 은메달로 바꿨다. 3년 후 파리 대회에선 금메달을 노려볼 만하다. 서수연은 “지유가 충분히 기량이 되니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스’로 인정받은 윤지유 역시 “파리에서는 애국가가 더 많이 울렸으면 좋겠다”며 “쉽게 이기면 그다음 세트 더 밀어붙여야 하는데 중간에 풀어버려서 경기가 쉽게 넘어간 것 같다. 안되는 부분을 보강하면 파리 대회 때는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장애인 여자 탁구에서는 아직 금메달이 나온 적이 없다. 언제쯤 금메달이 나오겠느냐는 질문에 세 선수는 망설임 없이 “파리(패럴림픽)”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 개인 단식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서수연(은)과 이미규, 윤지유(이상 동)는 메달 두 개씩을 목에 걸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 서수연·이미규·윤지유 “파리에선 반드시 애국가를”

한편, 이날 앞서 열린 또 하나의 결승전에서는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 김영건(37), 김정길(35·이상 광주시청)이 이뤄진 남자대표팀(스포츠등급 TT4-5)이 중국에 매치스코어 0-2로 패해 은메달을 확정했다. 리우 금메달에 이어 도쿄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했지만, 중국의 벽에 막혔다. 하지만 세 선수는 패배를 아쉬워하면서도 “수고했다. 고맙다”고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김영건은 “복식에서 연결 플레이는 우리가 훨씬 좋았는데 사소한 실수들이 나와서 졌다”며 “정길이가 2단식에서 잘 해줬는데, 복식을 이겼다면 정길이가 좀 더 편하게 경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영건-김정길이 차오닝-귀성위안과 복식 경기에서 패한 건 리우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바라던 금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은메달도 귀하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 합숙 훈련을 하며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선수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미소가 들었다. 올해 1월 결혼한 김영건은 패럴림픽을 준비하느라 신혼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회 전부터 “빨리 메달을 따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다”던 그는 개인 단식과 단체전에서 탄 은메달 2개를 목에 걸고 귀가한다. 김영건은 “개인, 단체전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회를 잘 치렀고 은메달 2개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빨리 돌아가서 아내를 보고 싶다”며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3년 후 파리 패럴림픽에선 중국을 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길은 “2012년 런던(은)과 리우(금) 대회 단체전에서 서한 입상해 이번 대회에선 개인전에서 성적을 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단체전에서 졌지만 은메달을 따서 기분 좋다”고 했다. 네 살배기 쌍둥이 아들이 있는 그는 “쌍둥이라서 금이든 은이든 메달 두 개를 따서 줘야 한다. 그라야 유치원에 가서 자랑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하나밖에 못 따서 며칠간 메달을 좀 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옆에서 김영건이 메달 하나를 빌려주겠다고 하자 김정길은 “아빠, 빨리 집에 갈게. 공룡 보러 가자!”고 기분 좋게 외쳤다. /연합뉴스

## ‘확대 로스터’ 양현종 하루만에 MLB 복귀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하루 만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해 개인 10번째 경기를 치렀다. 양현종은 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 5-8로 뒤진 9회초에 등판해 1/3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9월 1일에 마이너리그 트리플A 라운드록 익스프레스로 내려갔던 양현종은 하루 만에 빅리그로 돌아왔다. 메이저리그는 한국시간으로 2일(현지시간은 1일)부터 현역 로스터를 26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텍사스는 5일 초 부상으로 이탈한 아리하라와 하루 전(9월 1일) 마이너리그 트리플A 라운드록 익스프레스로 내려보낸 양현종을 빅리그 풀업 선수로 택했다. 이날 텍사스는 코로나19 관련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내야수 찰리 켈버슨을 현역 로스터에 등록하고 라이언 도로를 라운드록으로 내려보냈다. 양현종은 하루 만에 빅리그로 복귀하는 이색 경험을 했다. 개인 세 번째 ‘빅리그 풀업’이다. /연합뉴스

## ‘111호 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2일 포르투갈 알가르브의 이스타디우 알가르브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 A조 아일랜드와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상의를 벗어 흔들며 역전을 자축하고 있다. 지난 6월24일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어 A매치 109호골을 기록,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가 보유했던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호날두는 이날 헤더로만 2골을 터뜨리며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최다 111호 골 신기록을 세웠다. /EPA·연합뉴스

## ‘역시 호날두’, 역대 A매치 최다골 신기록



## 전남 공도, 대통령기 단체전 2연패

전남 공도가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하(신안 용항정), 김송현(신안 용항정), 김도성(나주 인덕정), 하신범(진도 창덕정), 안용환(강진 관덕정), 이기호(진도 창덕정), 고민수(고흥 흥무정)가 출전한 전남 공도팀은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육일정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일반부 단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을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사진) 전남 선수단은 함께 62점으로 광주와

동점이 돼 테스매치 방식(비교사)인 재대결을 펼쳐 광주를 꺾고 우승기를 거머쥐며 지난대회 우승에 이어 다시한번 전국 최강팀의 면모를 확인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통령기 2연패라는 큰 성과를 거둬 전남 공도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올 시즌에도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로 맺어낸 값진 보상이다. 다가오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광주FC, 수증 재활센터 ‘SPT’와 업무협약

프로축구 광주FC가 수증 재활센터 ‘SPT(Swim & Personal Training center)’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2일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 2층 사무처에서 김도경 SPT 대표, 최만희 광주FC 대표이사, 김성규 광주FC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수증 재활 치료에 대한 업무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SPT는 광주 전남 최초로 엔드리스풀(인공 물살을 이용해 제자리에서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한 수증 재활 센터다. 인공파도, 트레이드밀, 아쿠아바이크 등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최적의 운동효과로 트레이닝은 물론, 프로 선수단 재활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SPT는 광주 선수단에 3천만원 상당의 수증 재활 이용권을 후원하게 되며, 광주는 광주축구전용구장 본부석 맞은편 LED 광고보드, 홈페이지 광고 등 SPT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 태권도, ‘미국을 흘렸다’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아메리카갓 탤런트’ 결승 진출

진행자인 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배우 테리 크루스는 자신이 골든 버저를 준 팀이며 그들은 단지 우승만이 아닌 다른 미션을 갖고 이 자리에 출현했다고 연맹 시범단을 소개했다. 소개가 끝나고 바로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활력을 찾는 영상이 미국 전

역에 방영됐다. 이어 태권도는 격투기에 그치지 않고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는 스포츠로서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이에게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시범단원의 내레이션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다. 시범단은 한 치 흐트러짐 없는 품새

와 화려한 공중 동작을 선보이고 여러 개의 송판을 잇달아 격파하며 관객을 압도했다. 네 명의 심사위원은 “오늘 공연 중 최고의 공연이었다”며 다시 한번 극찬했다. 특히 세계적인 모델 하이다 클롬은 “관객과 많은 시청자가 태권도를 배우고자 한다. 연맹 시범단이야말로 진정한 액션 히어로다”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다음 주 열린 두 번째 준결승을 통해 올라올 5개 팀과 함께 총 10개 팀이 오는 15일 결승전에 나선다. 우승한 팀에는 상금 100만달러가 주어진다. /연합뉴스